

司馬遷의 경제관에 관한 몇 가지 검토 — 경제지리와 도시경제에 따른 致富 양상을 중심으로

김원중*

【목 차】

1. 서론
2. “財用”의 자발성 인식과 상공업의 위상
3. 지리 여건에 따른 주요 都會와 致富家들의 양상
 - 1) 경제지리에 따른 致富家들의 직업군
 - 2) 주요 都會의 사례 분석
4. 경제지리와 변화하는 사회상에 따른 상인계층의 양상
 - 1) 상업 기술의 전문화와 제철업 등 직업군의 전문화
 - 2) 변화하는 사회상에 따른 漢 武帝 정책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5. 결론

【초록】

사마천은 국가의 富보다는 개인의 富 창출 욕구를 긍정적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致富 과정에서 지리적 환경과 개인 역량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사마천은 시장의 자발성을 강조하면서 유통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누구든 富를 통해 신분이 격상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마천은 유통 경제의 발전이 환경조건과 결합 되어 있으며, 이런 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부의 축적은 힘들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즉, 교통의 요건 등을 감안한 입지 선택이야말로 투자 전략의 기본 전제조건임을 설파하였으며, 이것이 致富를 위한 관건임을 도시별, 직업군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사마천의 이러한 지리적 환경 분석과 해당 지역의 物産양상 및 도시경제 위주의 경제지도 완성은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고 있어 영향력이 상당한데, 이는 답사를 통해 치밀하게 지리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고찰한 데서 나왔다. 또 사마천의 자율경쟁정책은 漢 武帝 당시 鹽鐵의 專賣 등 국가의 경제독점권 및 과도한 조세 징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키워드】 致富, 지리적 환경, 경제지도, 유통 경제, 상인계층, 경제지리, 「貨殖列傳」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wjkim@dankook.ac.kr)

1. 서론

사마천의 「貨殖列傳」에 대한 연구가 많은 이유는 우선 “貨殖”이라는 개념이 갖는 영향력 때문이다. 사마천은 致富 양상을 유통 경제의 활성화나 경제의 지리적 가치와 상인계층의 형성 과정과 역사와 풍속과 연관하여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사마천이 「貨殖列傳」의 제목에 “貨殖”이란 말을 강조한 것도 재물을 불러 나가는 것을 인간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아울러 변화된 사회의 경제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농공상의 並重을 원칙으로 삼아야 사회 경제의 굳건한 토대구축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사마천이 「貨殖列傳」의 저술 동기의 핵심으로 “息財富”를 거론하면서 “벼슬이 없는 필부 신분으로 정치에 해치지도 않고, 백성에게 방해되지도 않으면서 때에 맞춰 팔고 사서 재산을 늘린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자도 이들에게서 취한 점이 있다布衣匹夫之人, 不害於政, 不妨百姓, 取與以時而息財富, 智者有采焉.”(『史記』「太史公自序」)라고 하였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致富를 긍정하고 신분을 떠나 치부에 관하여 배울 점을 취한다는 관점이다.

사마천은 기원전 5세기 초의 太公望을 시작으로 漢 武帝 원정 연간의 富商과 大賈에 이르는 400년 가까운 시간대를 서술 시기로 삼고 있으며 상반부 200여 년간은 8명의 치부한 자를 간단히 서술하고 있고, 후반에는 인물을 20여 명이나 상세하게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마천의 이런 서술 방식은 근대로 올수록 사회경제사적으로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상인의 지위에 심각한 지각변동이 있음¹⁾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마천은 경제력이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한다는 시각을 가졌으며, 국가의 富보다는 개인의 富의 창출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致富 과정에서 지리적 환경의 중요성과 개인 역량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致富가 인간의 기본 욕구라는 심리적 기저에 바탕을 둔 사마천의 관점은 「貨殖列傳」에 중점적으로 나타난다. 자매편인 「平準書」²⁾에는 서한 이래의 경제 상황과 한무제의 대외정벌정책과 국가가 부를 독점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 의식이 두드러진다.

「貨殖列傳」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경제 사상에 대한 연구, 사마천이 언급한 致富한 인물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³⁾ 본 고에서 필자는 사마천이 「貨殖列傳」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그 동안 연구가 소홀했던 유통 경제와 지리적 환경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마천이 역사와 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유통은 물론 풍속에 관한 생생한 기록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찰하면서 이러한 유통

1) “漢興, (……) 富商大賈周流天下, 交易之物莫不通得所欲. (……) 若至力農畜, 工虞商賈, 爲權利以成富, 大者傾郡, 中者傾縣, 下者傾鄉里者, 不可勝數.”(『史記』「貨殖列傳」)

2) ‘平準’이란 물가 조절 정책으로 경제와 국가의 정치, 군사, 법률, 도덕 등 제 방면의 상호영향 관계 및 상호의존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핵심은 한무제의 욕망 정치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니 한무제가 백성들을 부역·조세 등으로 힘들게 하고 재산을 손상시키고 도탄에 빠뜨린 문제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3) 김원중, 「『史記』「貨殖列傳」을 통해 본 ‘富’와 權力的 關聯樣相」, 『東洋學』, 2017 ; 최순화·김춘수, 「司馬遷의 貨殖列傳에 나타난 경제치국관과 경영관」, 『경영교육연구』, 2012 ; 김영인, 「司馬遷 經濟思想 研究」,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2009 ; 張雯, 「簡論『史記·貨殖列傳』中的商人形象」, 『安徽文學』, 第12期, 2011, p.135.

경제의 발전이 환경조건과 결합되어 있으며, 이런 점을 이용하여 부의 축적이 가능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또한 漢 武帝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제시한 사마천의 경제관을 상인계층의 양상과 연계시켜 다루고자 한다.

2. “財用”의 자발성 인식과 상공업의 위상

『貨殖列傳』에서 사마천은 반복적으로 奔富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강조한다. 백성들이 富를 추구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리려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고 인정에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빈부에 대해 인간의 차별화된 반응은 자연의 이치이며 인간의 욕망 중 하나라고 인식한 사마천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인간의 모습을 互見法 방식으로 다루기도 하는데⁴⁾ 인간의 致富 행위 원인이 “利”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속담에 ‘천금을 가진 아들은 저잣거리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빈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천하가 흥성함은 모두 이익을 위해 모여들고, 천하가 번잡함은 모두 이익을 위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이다. 저 1000승의 왕, 1만 가를 가진 제후, 백 실을 가진 대부도 오히려 가난을 걱정했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 집안의 서민이야 어떠하겠는가! 諺曰 千金之子, 不死於市. 此非空言也. 故曰 天下熙熙, 皆爲利來, 天下壤壤, 皆爲利往. 夫千乘之王, 萬家之侯, 百室之君, 尚猶患貧, 而況匹夫編戶之民乎!”(『史記』「貨殖列傳」)

속담을 인용하여 사마천은 “利”의 유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인간의 생리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富의 권력 속성⁵⁾도 함께 말하고 있다. “천금을 가진 아들은 저잣거리에서 죽지 않는다 千金之子, 不死於市.”란 말은 『史記』「越王句踐世家」에도 나오는데, 그 내용⁶⁾을 보면, 도주공의 둘째 아들이 살인죄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범려가 자신의 돈으로 아들을 구해 주겠다고 하면서 한 말이다. 사마천은 권력화된 富에 대한 인간의 굴종적 면모를 풍자하면서 죄를 지어도 돈을 통해 형벌을 면하거나 면죄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관계의 밑바탕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지적했다.⁷⁾

4) 사마천은 『史記列傳』의 대미를 「太史公自序」를 제외하면 「貨殖列傳」으로 하고, 『史記書』에서도 「平準書」를 맨 뒤 편명으로 하고 있다. 두 편 모두 경제상을 언급하고 있으나, 「平準書」는 주로 경제정책과 비판을 다루고 있고 「貨殖列傳」은 주로 개인적 부를 축적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권력을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5) 이에 관해서는 김원중의 논문 「『史記』「貨殖列傳」을 통해 본 ‘富’와 權力的 關聯樣相, 『東洋學』, 제 66집, 2017, pp.1-20에 상세하므로 해당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6) “朱公居陶, 生少子. 少子及壯, 而朱公中男殺人, 囚於楚. 朱公曰 殺人而死, 職也. 然吾聞千金之子不死於市. 告其少子往視之. 乃裝黃金千溢, 置褐器中, 載以一牛車. 且遣其少子, 朱公長男固請欲行, 朱公不聽. 長男曰 家有長子曰家督, 今弟有罪, 大人不遣, 乃遣少弟, 是吾不肖. 欲自殺. 其母爲言曰 今遣少子, 未必能生中子也, 而先空亡長男, 奈何? 朱公不得已而遣長子, 爲一封書遺故所善莊生. 曰 至則進千金于莊生所, 聽其所爲, 慎無與爭事. 長男既行, 亦自私齎數百金.”(『史記』「越王句踐世家」)

7) 곡식이나 돈으로 사면 받거나 벼슬을 할 수 있는 예가 『史記』「平準書」에도 보인다. “도복작(형을 선고받은 죄인의 죄를 사면해 주는 대신에 관부에서 형기를 마칠 때까지 노역에 종사시키는 것)에

사마천은 인간의 악행에도 그 언저리에는 “財用”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마을의 젊은이들이 있어 협박하여 빼앗고 사람을 때려죽인 뒤 묻어 버리고, 사람들을 협박하며 사악한 것을 일삼고 무덤을 파헤치고 돈을 위조하며, 협객인 채하면서 패거리를 이루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원수를 갚고, 후미진 곳에서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내쫓는 등 법에 금지되는 행위를 피하지 않고 달리듯 죽을 곳으로 나아가는데 이는 사실 모두 재물의 쓰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其在閭巷少年, 攻剽椎埋, 劫人作姦, 掘塚冢鑄幣, 任俠並兼, 借交報仇, 篡逐幽隱, 不避法禁, 走死地如驚者, 其實皆爲財用耳.”(『史記』「貨殖列傳」)

윗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를 향한 과도한 욕망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 부정적이고 파괴한 사회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마천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게 된 경위는 자신의 궁핍했던 삶과도 연관이 있으니 ‘李陵之禍’와 무관하지 않다.

사마천은 ‘自然之驗’이란 말로 자유 시장을 가장 정교하게 이론화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한다.⁸⁾ 경제가 발전하려면 당시의 지리적 여건을 잘 파악해야 하고 역사와 풍속에 대한 안목도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致富를 위해서는 봉해진 투자환경의 극대화 전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마천은 지역의 속성을 잘 파악하여 상응하는 경제 정책을 시행한 태공망의 업적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태공망이 營丘에 봉해졌을 때 그 땅은 소금기가 많고 백성이 적었다. 그래서 태공망은 부녀자들의 일을 장려하여 기교를 극대화하고, [각지로] 생선과 소금을 유통하자, 사람과 물건이 [그 곳으로] 돌아오고 줄지어 잇달아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제나라는 천하에 관과 띠와 옷과 신을 퍼뜨려, 동해와 태산 사이의 [제후들은] 소매를 바로 하고 [제나라로] 가서 조회하였다. 太公望封於營丘, 地潟鹵, 人民寡, 於是太公勸其女功, 極技巧, 通魚鹽, 則人物歸之, 繼至而輻湊. 故齊冠帶衣履天下, 海岱之間斂袂而往朝焉.”(『史記』「貨殖列傳」)

위 인용문에서 여건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부녀자들의 일(길쌈 등)의 장려와 소금, 관, 띠, 옷, 신 등의 유통업을 통해 잘 살게 만들어 사람들을 모이게 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태공망은 벼슬 없는 평범한 백성은 아니기에 사마천이 주로 다루고자 하는 범위의 인물군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태공망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상업 촉진의 방법을 통해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제적 풍요를 가져와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서술은 상업을 활용한 집정자의 선례가 된다.

사마천은 교통의 편리한 대도시 중심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적어도 20~30 퍼센트의 이익을 창출하기도 하며 이들이 “素封⁹⁾”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처해진 자가 곡식을 현관에게 바치면 죄를 사면받을 수 있다. 及徒復作, 得輸粟縣官以除罪.”, “재물을 뇌물로 바치는 사람은 관리로 임명되고 돈을 주면 죄도 벗어나게 되었다. 入物者補官, 出貨者除罪.”, “상홍양은 또한 관리들로 하여금 양식을 바치면 벼슬을 주고, 죄인이 재물로 속죄할 수 있게 했다. 弘羊又請令吏得入粟補官, 及罪人贖罪.”

- 8) 황태연, 「서구 자유시장론과 복지국가론에 대한 공맹과 사마천의 무위시장 이념과 양민철학의 영향 - 공자주의 경제·복지철학의 보편성과 미래적 함의에 관한 비교철학적 탐색」, 『한국학』, 제35권, 2012, p.352.

“교통이 편리한 큰 도시에서는 한 해에 술 1000독, 식초 1000병, 간장 1000독, 도축한 소와 양과 돼지 1000마리, 내어 판 곡식 1000종(鍾), 땔나무 1000수레, 길이가 1000장(丈) 되는 배에 실은 땔감용 목재 1000장(章), 대나무 장대 1만 개, 말이 끄는 수레(輶車) 100대, 소가 끄는 수레 1000대, 칠기 1000개, 구리 그릇 1000군(鈞), 나무 그릇이나 쇠 그릇 또는 잇꽃이나 꼭두서니 1000섬, 말 200마리, 소 500마리, 양과 돼지 각 2000마리, 노비 100명, 힘줄과 뼈와 단사 1000근, 비단과 솜과 가는 베 1000군, 무늬 있는 비단 1000필, 두꺼운 베와 가죽 1000섬, 옷 1000말, 누룩과 메주 각 1000홉, 복어와 갈치 1000근, 말린 생선 1000섬, 절인 생선 1000군, 대추와 밤 각 3000석을 생산하는 자는 10분의 3의 이익을 거둔다. 여우와 담비로 만든 갓옷 각 1000장, 염소와 양으로 만든 갓옷 1000섬, 털자리 1000장, 다른 과일과 야채 1000종 등의 물건을 팔면 그 이자는 1000관(貫)을 얻게 된다.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상인은 본전의 3분의 1을 이익으로 챙기고,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상인은 5분의 1을 이익으로 얻는다. 이들의 수입 역시 영지 1000호를 가진 제후와 같은 수준이다. 이상이 소봉의 대강이다. 그 밖의 잡일을 하면 10분의 2의 이익도 올리지 못하므로 우리가 말하는 재물을 모으는 방식이 아니다. 通邑大都, 酤一歲千釡, 醢醬千瓠, 漿千甔, 屠牛羊歲千皮, 販穀糶千鍾, 薪稿千車, 船長千丈, 木千章, 竹竿萬, 其輶車百乘, 牛車千兩, 木器髹者千枚, 銅器千鈞, 素木鐵器若卮茜千石, 馬蹄躑千, 牛千足, 羊歲千雙, 僮手指千, 筋角丹沙千斤, 其帛絮細布千鈞, 文采千匹, 榻布皮革千石, 漆千門, 檿麴鹽豉千苔, 鮐鯈千斤, 鰕千石, 鮑千鈞, 棗栗千石者三之, 狐貂裘千皮, 羔羊裘千石, 旃席千具, 佗果菜千鍾, 子貨金錢千貫, 節駟會, 貪賈三之, 廉賈五之, 此亦比千乘之家, 其大率也. 佗雜業不中什二, 則非吾財也.”(『史記』「貨殖列傳」)

이 인용문은 素封, 즉 천자(天子)로부터 받은 봉토(封土)는 없으나 재산이 많아 제후와 비할만한 큰 부자들이 물건을 팔아서 생기는 이득을 구체적인 숫자 제시를 통해 대단히 촌충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子貨金錢千貫, 節駟會, 貪賈三之, 廉賈五之’에서 보여지듯, 욕심을 좀 부려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 사마천은 일정 부분 긍정하면서 재산 증식이라면 적당한 탐욕과 욕심을 용인하고 있다.

사마천이 조사한 도시의 유통물을 살펴보면, 1차 경제활동의 결과물인 농업, 임업, 수렵채취, 어업 등 자연에서 채취하고 이용하는 채취산업으로 ‘소양돼지牛羊歲, 곡식穀, 땔나무薪稿, 목재木, 대나무 장대竹竿, 복어와 갈치鮐鯈, 말린 생선鰕, 저린 생선鮑, 대추와 밤棗栗, 다른 과일과 야채佗果菜’의 수량을 분석하였고, 2차 경제활동인 광업, 수공업의 산업물로 ‘술酤, 식초醢醬, 간장漿’ 등의 농산물 가공품과 ‘나무칠기木器髹, 구리그릇銅器, 나무그릇과 쇠그릇素木鐵器, 비단과 솜과 가는 베帛絮細布, 무늬있는 비단文采, 두꺼운 베와 가죽榻布皮革, 옷漆, 누룩과 메주麴鹽豉, 여우와 담비로 만든 갓옷狐貂裘, 염소와 양으로 만든 갓옷羔羊裘, 털자리旃席’ 등의 수공업의 수량을 분석하였다.

9) “素封”에 관하여 사마천은 『貨殖列傳』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직의 지위에 따라 받는 봉록도 없고 작위에 따라 받는 식읍의 수입도 없으면서 즐거움이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과 비견되는 자를 소봉이라 한다. 諺曰 百里不販樵, 千里不販糶. 居之一歲, 種之以穀, 十歲, 樹之以木, 百歲, 來之以德. 德者, 人物之謂也. 今有無秩祿之奉, 爵邑之入, 而樂與之比者. 命曰 素封.” 본고에 인용된 『사기열전』 번역은 김원중, 『사기열전』2, 민음사, 2015. p.816에 따랐다. 아울러 본고에 인용된 『사기열전』 예문의 번역은 쪽수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김원중의 번역을 따르고 부분적으로 수정했음을 밝힌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역이나 생산량, 상인의 성향에 따른 각종 물산의 차이에 대한 대물 가치를 평균하여 공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각각의 도시별로 유통되는 물산과 그 수량, 거래 가격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구체적인 통계 일람표로서 그 당시 현물 가격과 생산물, 상인의 양상 등 그 당시 상공업의 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¹⁰⁾

3. 지리 여건에 따른 주요 都會와 致富家들의 양상

1) 경제지리에 따른 致富家들의 직업군

사마천은 전국 각 경제구역과 각 분야의 생산물과 농산물이나 수공업 제품, 천연 광물, 임산물의 다양한 상품은 소비자의 수요에 따른 사용가치가 있는 생필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마천은 長安, 洛陽, 臨淄, 宛, 楊과 平陽, 陶와 睢陽 등을 순서대로 거론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리적 위치 등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풍부한 답사 여행 덕에 역사 지리에 대해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¹¹⁾ 사마천은 경제 지리관에 따라 전국을 네 개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山西, 山東, 江南과 龍門碣石의 북쪽이다.¹²⁾ 사마천이 말한 山西와 山東은 崑山の 동과 서에 의한 구분이다. 江南은 江水를 경계선으로 삼으며 黃河가에 위치한 龍門은 지금의 陝西省 韓城市 부근에 있는 지명이다. 碣石은 지금의 秦皇島 부근이다. 사마천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지역과 物産의 관계에 있음을 경제지리¹³⁾적 관점에서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0) 사마천은 자연과 환경에 관한 관심 방향이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일상적인 소비생활을 좌우하고, 경제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나라 간의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향해 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는 문제는 근대지리학의 시작부터 논의되어 온 주요 과제로,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리학의 존망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미즈우치 도시오, 심정보 역, 『공간의 정치지리』, 푸른길, 2010, p.126.)

11) 사마천은 「孔子世家」에 묘사되어 있듯이 노나라 공자 사당의 구택에 가서 예의를 익혔던 적도 있으며, 「太史公自序」에서 “南遊江淮, 上會稽, 探禹穴, 九疑, 浮於沅湘, 北涉汶泗, 講業齊魯之都, 觀孔子之遺風, 鄉射鄒嶧, 困鄒薛彭城以歸.”라고 한 것이라든지 “奉使西征巴蜀以南, 南略邛笮昆明.”과 같은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마천은 大梁의 빈 터[墟]에 가서 현지인으로부터 위나라가 멸망한 원인을 들었다고 「魏世家」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漢 武帝를 따라 “從巡祭天地諸神名山川而封禪.”(「封禪書」)의 장면도 직접 거행한 적이 있으며, 蒙恬이 구축한 만리장성을 직접 가 본적이 있다는 것을 “適北邊, 自直道歸, 行觀蒙恬所爲秦築長城亭障.”(「蒙恬列傳」)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그 당시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천하의 면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이런 안목이 그의 경제 지리관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12) 史念海, 「中國曆史地理學區域經濟地理的創始」, 『中國曆史地理論叢』, 第3期, 1996. p.1.

13) ‘경제지리’ 또는 ‘경제지리학’은 지리학의 전통적인 하위 분야이지만,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종목을 다루듯이 이 분야에 접근하고 있다. 베리(B. J. Berry)는 ‘경제지리학’을 경제활동의 입지, 공간조직, 경제체계의 성장 및 자원의 이용과 남용에 관한 개념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경제체계란 경제력의 공간적 행동과 지역 경제구조, 즉 지역분화 형태와의 상호의존 관계를 말한다. (한주성, 「『경제지리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6, p.19.)

“대체로 산서 지방에는 목재와 대나무와 탁나무와 모시와 검은 소꼬리와 옥석 등이 풍요롭고, 산둥 지방에는 물고기와 소금과 옷과 명주실과 미녀 등이 많으며, 강남 지방에는 녹나무와 가래나무와 생강과 계수나무와 금과 주석과 납과 단사와 무소뿔과 대모와 진주와 상아와 가죽 등이 나오고, 龍門과 碣石 북쪽에는 말과 소와 양과 모직물과 갓옷과 짐승의 힘줄과 뿔 등이 많다. 구리와 철은 [사방] 1000리 안에서 종종 나오므로 바둑돌을 벌여 놓은 것처럼 [여기저기에] 있다. 이것이 대략적인 상황으로 모두 중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세속에서 몸에 걸치고 먹으며, 산 사람을 받들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데 쓰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농부는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와 사냥꾼은 물건을 공급하고, 기술자는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고, 장사꾼은 이것을 유통시킨다. 夫山西饒材竹穀纊旄玉石, 山東多魚鹽漆絲聲色, 江南出楠梓薑桂金錫連丹沙犀玳瑁珠璣齒革, 龍門碣石北多馬牛羊旃裘筋角, 銅鐵則千里往往山出棋置, 此其大較也. 皆中國人民所喜好, 謠俗被服飲食奉生送死之具也. 故待農而食之, 虞而出之, 工而成之, 商而通之.”(『史記』「貨殖列傳」)

위 인용문 “모두 중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皆中國人民所喜好.”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분야의 상품공급은 백성들 즉, 수요자의 기호에 맞게 그것을 유통하면 된다는 시장조사 방식을 사마천은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세속에서 유행하는 것에 대한 분석과 장래에 쓰이는 물품의 소비까지도 면밀히 조사했음을 알 수 있다. “농부를 기다려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와 사냥꾼은 공급하고, 장인은 물건을 만들고, 장사꾼은 유통시킨다待農而食之, 虞而出之, 工而成之, 商而通之.”고 한 부분을 보면 사마천은 이미 생산, 소비, 유통의 경제망을 유기적으로 직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마천의 이런 구분 방식은 각 지역의 주요한 물산 분포에 따른 것으로 경제활동의 입지, 자원의 이용 등을 고려한 경제 지리적 접근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구체적인 숫자를 표기하는 통계 방식¹⁴⁾을 취하여 자신의 논지에 설득력을 얻게 하고 있다. 사마천이 분류한 각 지역과 업종, 역사, 지리와 풍속, 유통 및 물산으로 세분하여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경제지리에 따른 도시의 업종과 역사와 지리, 유통의 상관관계

연번	도시	업종	역사	지리·풍속	유통 및 물산
1	長安	농업	虞夏 상등급 전지[上田], 公劉·大王·王季·文王·武王 다스림.	기름진 땅 1000리, 선왕의 풍모 지님, 사악함을 두려워함. 토지 중시.	농사짓기, 오곡 심기.
		상업	秦 文公·德公·繆公 雍에 도읍		隴과 蜀의 물자 모여 듭.
		상업	獻公 櫟邑에 도읍	戎翟, 三晉과 통함.	
		상업	漢나라 長安에 도읍	長安 주변의 농모로 사방에서 유입.	
2	洛陽		堯[唐人]·河東, 盤庚[殷]	천하의 중앙. 땅 협소하나 많은 백성.	齊, 魯나라와 통

14) “陸地牧馬二百蹄, 牛蹄角千, 千足羊, 澤中千足鼃, 水居千石魚陂, 山居千章之材. 安邑千樹棗, 燕秦千樹栗, 蜀漢江陵千樹桔, 淮北常山已南河濟之間千樹艸秋, 陳夏千畝漆, 齊魯千畝桑麻, 渭川千畝竹, 及名國萬家之城, 帶郭千畝鍾之田, 若千畝茜, 千畝薑韭, 此其人皆與千戶侯等.”(『貨殖列傳』) 아울러 본고에서 본문과 각주에 인용된 원문에 별도 출전표시가 없는 것은 모두 『貨殖列傳』임을 의미한다.

연번	도시	업종	역사	지리·풍속	유통 및 물산
			人]·河內, 平王[周人]·河南 洛陽에 도읍	제후들이 모여 풍속 섬세. 검소함. 세상 사에 익숙.	하고 양, 초나라와 거래.
3	臨淄	사농상공賈		東海와 岱山[海岱] 사이의 큰 도시. 너그럽고 활달. 지혜롭고 의논을 좋아함. 큰 나라의 유풍.	
4	宛	상업		潁川과 통함. 여러 가지 일하기를 좋아함.	
5	楊平陽	상업		秦나라 白翟, 種代와 장사. 자존심 강함. 승부욕 있음. 성을 잘 내고 유풍 기질.	
6	溫·軹		메마른 땅 많은 사람[地薄人衆]. 음란한 紂王의 자손[紂淫地餘民]. (中山)	上黨·趙·中山과 거래. 경박·교활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음.	
7	陶·睢陽		成陽에 휴식궁, 雷澤에서 물고기 잡음, 亳에 거주한 湯 왕.	선왕의 유풍이 남아 있음. 사람들은 중후하여 군자가 많음. 검소하며 재물을 모음.	농사짓기
8	邯鄲(鄭·衛)			漳水와 河水에 있는 큰 고을, 燕·涿과 통함. 梁·魯나라 인접. 중후[重]. 절조 숭상[矜節].	
9	燕	상업		渤海와 碣石山[勃碣] 사이의 큰 고을. 齊·趙와 통하고 흉노[胡]와 맞닿음. 강하고 사납지만 생각이 얇음.	물고기, 소금, 대추, 밤
10	陳	상업		楚나라와 夏나라의 중간에 위치.	생선, 소금
11	江陵(西楚)	상업	楚나라 도읍인 郢	巫·巴와 雲夢과 통함. 사납고 경솔하며 쉽게 화를 냄.	운몽의 풍요한 생산물
12	壽春·合肥(南楚)	상업	郢 멸망후 壽春으로 옮김[郢之後徙壽春].	江水, 淮水の 조수를 남북으로 받음. 문사를 좋아하나 교묘하여 믿음이 적음.	피혁·건어물·목재가 모임. 대나무 생산. 황금·아연·주석은 양이 미비.
13	番禺	상업		구의산[九疑]과 창오군[蒼梧]부터 儋耳는 강수 남쪽[江南]과 풍습이 거의 같음. 楊越 사람이 많음.	주옥, 犀角, 玳瑁, 과일, 삼베 등이 모임.
14	鄒·魯			洙水와 泗水 사이. 유교 숭상. 예를 지켜 백성의 도량이 깊음. 땅은 좁고 사람은 많으므로 검소하고 인색. 죄를 두려워하여 사악한 것을 멀리함. 지금도 주공의 유풍이 남아 있음[猶有周公遺風]	뽕, 삼
15	東楚	商	오왕 합려, 춘신군, 오왕	東海, 吳, 廣陵까지. 徐, 僮과 비슷하여	물고기, 소금, 장

연번	도시	업종	역사	지리·풍속	유통 및 물산
			유비가 놀기 좋아하는 젊은 사람을 불러 모음 [吳自闔廬春申王濞三人招致天下之喜游子弟]	백성은 청렴하나 각박. 약속을 중히 여기는 것을 자랑으로 삼음, 胸繒은 齊와 浙江 南쪽은 越과 비슷함.	산의 구리, 삼강과 오호에서 이익을 얻음.
16	潁川·南陽		하나라 사람이 살던 곳 [夏人之居]	武關·鄖關에 통하고, 漢수와 江수와 淮수를 받아들임. 선왕의 유풍이 남아 있음. 후덕하고 삼가며 신중.	
17	濮上		野王으로 옮겨 감.	의기를 중시[好氣]. 유협 숭상[任俠]. 위나라 유풍[衛之風].	
18	齊			산과 바다 인접. 뽕나무삼 기르기 적당.	배, 비단, 생선, 소금 생산.

<표1>에서 선왕의 유풍을 따르는 곳은 다섯 군데(음영 부분)로 백성들이 1차 산업인 농사를 기본으로 하며 예를 중시하고 인품이 후덕하고 사악함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도시에서는 농사짓기보다는 산, 바다, 강 등의 지리적 요건과 인접 국가와의 관계, 특산물 등을 이용하여 2차 산업인 상업을 발달시켜 경제력을 키워갔다는 점을 적시했다.¹⁵⁾ 특히 상업 발달에 있어서 인간관계와 기질의 풍속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여 경제활동의 입지는 물론 공간조직과 경제체계의 성장 및 자원을 이용한 당시의 생생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특히 「貨殖列傳」에서는 상업 도시의 흥기로서 邯鄲, 燕과 臨淄, 陶와 睢陽, 壽春, 番禺, 宛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貨殖의 열풍이 일어났고 그 풍속들이 형성되었다고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咸陽과 長安, 洛陽이 “都會”의 역할을 하여 “都國諸侯所聚會”(「貨殖列傳」)의 인적 교류의 산실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사마천은 「貨殖列傳」의 후반부에서 사방 1000리 안에 살았던 현명한 사람들이 치부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¹⁶⁾, 이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15) 진시황 때는 시장이 서북쪽에 형성되어 烏氏와 巴郡에 巨富와 豪商이 생겨났다. 사마천은 20여 地區와 도시를 열거하고 일일이 그 풍토와 민간정서를 묘사하면서 상인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고 있다. 「貨殖列傳」에서 關中과 雍을 언급하면서 “隙隴蜀之貨物而多賈.”라고 하였고 櫟邑은 “多大賈”라 하고 咸陽과 長安은 “民益玩巧而事末.”하고, 鄒·魯는 “好賈趨利, 甚於周人.”이라 하고 陳은 “其民多賈”하고 宛는 “業多賈”라고 했다.

16) “請略道當世千里之中, 賢人所以富者, 令後世得以觀擇焉. 蜀卓氏之先, 趙人也, 用鐵冶富 (……) 運籌策, 傾滇蜀之民, 富至僮千人. 田池射獵之樂, 擬於人君 (……) 程鄭, 山東遷虜也, 亦冶鑄, 賈椎髻之民, 富埒卓氏, 俱居臨邛. 宛孔氏之先, 梁人也, 用鐵冶為業 (……) 連車騎, 游諸侯, 因通商賈之利 (……) 曹邴氏尤甚, 以鐵冶起, 富至巨萬 (……) 貫貸行賈遍郡國...刀閭獨愛貴之. 桀黠奴, 人之所患也, 唯刀閭收取, 使之逐漁鹽商賈之利, 或連車騎, 交守相, 然愈益任之. 終得其力, 起富數千萬 (……) 師史能致七千萬 (……) 富人爭奢侈, 而任氏折節為儉, 力田畜. 田畜人爭取賤賈, 任氏獨取貴善. 富者數世...橋姚已致馬千匹, 牛倍之, 羊萬頭, 粟以萬鍾計 (……) 無鹽氏出捐千金貸, 其息什之. 三月, 吳楚平, 一歲之中, 則無鹽氏之息什倍, 用此富埒關中 (……) 田奮、田蘭. 韋家栗氏, 安陵、杜杜氏, 亦巨萬 (……) 秦揚以蓋一州. 掘冢, 姦事也, 而田叔以起. 博戲, 惡業也, 而桓發用 (之) 富. 行賈, 丈夫賤行也, 而雍樂成以饒. 販脂, 辱處也, 而雍伯千金. 賣漿, 小業也, 而張氏千萬. 洒削, 薄技也, 而郅氏鼎食. 胃脯, 簡微耳, 濁氏連騎. 馬醫, 淺方, 張里擊鍾. 此皆誠壹之所致.”(「貨殖列傳」)

<표2> 致富家들의 직업군과 치부 항목

연 번	사방 1000리 안의 부자들		연 번	성일(誠壹)한 방법을 활용한 부자들	
	항목	이름		항목	이름
1	철제련(鐵製鍊)	촉군의 卓氏(탁왕손, 포로), 程鄭(포로), 宛땅 孔氏, 曹땅 邴氏	1	밭농사[田農]	秦나라 楊씨
2	유통업(流通業)	師史	2	무덤 도굴[掘冢]	田叔
3	농사[農]와 목축(牧畜)	宣曲의 任氏, 橋姚	3	도박[博戲]	桓發
4	고리대금(高利貸金)	無鹽氏	4	행상[行賈]	雍樂成
5	부상(富商)이나 대고(大賈)	田耆, 田蘭	5	臙脂판매[販脂]	雍伯
6	거만금(巨萬金)의 부자	韋家の 栗씨, 安陵과 杜현의 杜氏	6	술장사[賣漿]	張氏
7	소금[鹽]·생선[魚]	刁閑	7	칼갈기[洒削]	鄧氏
			8	양의 포 판매[胃脯]	濁氏
			9	말치료[馬醫]	張里

<표2>는 각종 직업을 가진 부자들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품 생산과 유통을 겸한 자들을 살펴보면, 우선 촉군의 탁씨는 철을 캐고 제련하여 부자가 되었으며, 지혜롭게 교역하고 滇과 蜀 땅의 백성을 기술자로 이용하였다. 생산과 유통은 물론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것은 최소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내는 방식이며, 현지인의 고용 방식은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程鄭의 경우 철을 제련하여 머리를 방망이 모양으로 틀어 올린 사람들과 거래했는데, 이는 鹽鐵을 전매하는 국가의 정책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기도 하면서 자율 경쟁에 맡겨 두면 이웃 나라와 자연스럽게 유통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宛땅 공씨는 철을 제련하고 제후에게 유세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장사하였는데, 이 경우는 생산과 유통을 전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마케팅 전략까지 구사하고 있다. 曹 땅의 邴氏는 철을 제련하면서 행상을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데, 생산과 유통으로 인한 잉여 자본의 재투자 과정이 표현된 구절이라 하겠다. 이들 이외에 특수 업종으로 치부한 자들도 있으니 鄧氏와 濁氏와 張里가 해당되고, 대부업을 한 자들도 있었으니 無鹽氏가 해당된다. 이들은 사실상 상인이라는 협의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 되니 “貨殖”이란 이름에 어울린다 하겠다.

이들은 직업도 다양하고 생산되고 유통되는 물건도 다양하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능력 우선을 주장한 사마천은 사물의 이치를 헤아려 행동하고 시세의 변화를 살펴 이익을 얻는 것을 긍정하였으며, 천하거나 하찮은 일, 기이한 일도 꾸준히 해서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도 일정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므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致富했을 지라도 富를 이루었는데, “素封”이라고 하면서 높이 평가하였다. 물론 사마천의 이러한 서술은 무제가 취한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전통적인 관념에서 볼 때, 상업은 농업에 대비되어 末業으로 인식되었으나, 제국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상인의 경제력에 힘입어야 했으므로 상인 역시 권력과 결탁했다.¹⁷⁾ 漢 武帝 시대에 관료조직의 핵심 그룹 중의 하나는 직업적 상인 출신의 관료들이었다. 특히 이들은 漢 武帝의 정벌정책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파탄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자들이 조정의 추천을 받아 권력층으로 들어왔다. 당시 상황을 사마천에 의하면, 화물을 실은 수레가 수백 대나 될 정도로 이익을 얻었으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사재기를 해댔다. 그러자 封君¹⁸⁾들도 모두 머리를 숙이고 재물을 공급받았다. 또한 그들은 철기를 주조하고 소금을 구워 재물을 수만금이나 쌓아 두기도 했다¹⁹⁾.

사마천은 당시 도시경제를 중시하여 농업이 아닌 상업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그런데 사마천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직업을 통해 부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농업으로 부를 이룬 것을 으뜸이라 하고, 상업으로 부를 이룬 것은 그다음이며, 간사하고 교활한 수단으로 부를 얻는 것이 가장 저급하다 本富爲上, 末富次之, 奸富最下.”라고 말하기도 했다. “本富”, “末富”, “奸富”에서 “本富”와 “末富”는 농업과 상업으로 구분한 것으로 공통점은 자신의 경영 능력에 의해 재단을 불린 자들로서 정당한 행위로서 모범으로 삼을 만한 자들이지만, “奸富”는 “작위와 봉읍이나 녹봉을 가지고 법률을 교묘하게 운용하고 나쁜 짓을 하여 부자가 된 有爵邑奉祿弄法犯姦而富.” 자들이라는 점이다. 물론 “사람들을 협박하며 사악한 짓을 일삼고, 무덤을 파헤쳐 보물을 훔친 劫人作姦, 掘冢鑄幣.” 범법행위를 일삼은 자들에 대해서 사마천은 엄격하게 “齊之”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사마천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富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여 덕을 중시하였으며, 오히려 “돈을 불리려면 값싼 곡식을 사들이고 欲長錢, 取下穀.”이라 하여 염가에 사서 박리다매의 방식으로 이윤을 낸 백규의 방식을 선호하였다.

사마천은 국가의 상업 관리 방식에도 충위가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은 교육과 설득이며 그다음은 억압과 간섭이고 가장 나쁜 것이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것²⁰⁾이라고 적시했다. 漢 惠帝와 高后 시기는 백성들이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자 하여 천하가 안정되면서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점차 일어났다가 文帝때에 여러 차례 조서를 내려 백성들을 귀농하라고 하면서 경제활동에 간섭하기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教誨”, “整齊”다. 그러나 무제 시대에 이르러 염철 전매와 평준정책이 시행된 것에 대해 사마천은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下策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마천은 자유무역 이론의 경제관을 제시한 것으로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의미가 있다.

2) 주요 都會의 사례 분석

사마천은 「貨殖列傳」에서 교통 중심 도시를 서술하여 유통업이 활성화되고 장사를 주업으

17) 박기수 외, 『중국 고대 사회경제사』, 청어람미디어, 2005, p.585. 참조.

18) 封君이란 군주에게 封號 또는 土地를 받은 신하를 말한다. 주체적으로 행정권을 갖지 않고 封地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戰國 시대의 관료제 정착 과정에서 봉군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 “轉轂百數, 廢居居邑, 封君皆低首仰給. 冶鑄煮鹽, 財或累萬金.”(「平準書」)

20) “善者因之, 其次教誨之, 其次整齊之, 最下與之爭.”(「貨殖列傳」)

로 삼게 된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사마천은 關中을 중심축으로 삼아 정치 중심지인 동시에 경제 중심지임을 밝히면서 관중에 가까운 장안으로 도읍을 정하게 되면서 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關中²¹⁾은 汧²²⁾과 雍²³⁾에서부터 동쪽으로 河水와 華山에 이르기까지 기름진 땅이 1000리에 펼쳐있어 虞와 夏 시대의 貢賦에서도 상등급의 전답으로 삼았다. 또한 公劉는 邠으로 갔고, 大王과 王季는 岐山에서 살았으며, 文王은 豐을 일으켰고, 武王은 鎬京을 다스렸으므로 이 땅에 사는 백성은 아직도 선왕이 남긴 풍모를 지니고 있으므로 농사짓기를 즐겨 오곡을 심고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사악한 짓을 두려워한다. 秦나라 문공과 덕공과 목공이 雍에 도읍하니, [그곳에는] 隴과 蜀의 물자가 많이 모여들고 장사꾼도 많았다. 漢公은 櫟邑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역읍은 북쪽으로는 戎翟을 물리칠 수 있고, 동쪽으로는 三晉과 통해서 또한 큰 장사꾼이 많았다. 孝公과 소왕은 함양에서 다스렸으므로 한나라는 [장안에] 도읍을 정했다. 장안 주변에는 여러 개의 陵墓가 있으므로 수레바퀴 살이 바뀌 축으로 향하듯 사방에서 줄지어 모여들었다. 땅이 좁고 사람이 많으므로 그곳 백성은 약아져서 말단(상업)을 일삼았다. 關中自汧雍以東至河華, 膏壤沃野千里, 自虞夏之貢以爲上田, 而公劉適邠, 大王王季在岐, 文王作豐, 武王治鎬, 故其民猶有先王之遺風, 好稼穡, 殖五穀, 地重, 重爲邪. 及秦文德繆居雍, 隙隴蜀之貨物而多賈. 獻公徙櫟邑, 櫟邑北卻戎翟, 東通三晉, 亦多大賈. 孝昭治鹹陽, 因以漢都, 長安諸陵, 四方輻湊並至而會, 地小衆, 故其民益玩巧而事末也.”(『史記』「貨殖列傳」)

사마천은 관중의 위치를 상세히 기술하면서 虞·夏 시대로부터 대대로 도읍지로 삼았던 지역으로 文王이 땅을 다스리던 때에는 선왕의 유풍이 남아 있고 농사짓기를 즐겼던 풍습에 반해 秦 문공과 덕공 이후에는 隴과 蜀의 물자가 모여들고 장사꾼도 많아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漢公에 이르러 동쪽의 삼진을 통해 큰 장사꾼이 많아졌으며, 孝公과 소왕 이후에는 백성들이 더욱 약아졌는데, 역대 제왕들이 왜 이 근처에 도읍을 정하여 천하의 패권을 다투려 했는지 밝히고 있다. 그러고는 교통의 요지인 長安에 사는 백성들의 성향을 “玩巧”라고 평가하고는 이런 기질로 인해 말단인 상업에 섬기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장안 주변이 도시화되면서 농업 중심 사회에서 상업의 발달로 전개되는 추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리적 환경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마천의 발언에서 확인되듯 교역이 번창하여 부의 창출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사마천이 중요하게 거론한 도시들을 보면 한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i) “임치 또한 동해와 태산 사이에 있는 큰 도시이다. (……) 대체로 큰 나라의 유풍이 있으며 그 중에는 五民(사, 농, 상, 공, 고賈)이 갖추어져 있다. 臨淄亦海岱之間一都會也. (……) 大國

21) ‘關中’에 대한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 函谷關 서쪽으로, 秦嶺 이남의 漢中, 巴蜀까지 포함한 秦나라의 옛 땅이라는 설, 둘째, 函谷關 서쪽은 같은데 秦嶺 이북의 지역으로 陝西 북부를 포함하는 지역이라는 설, 셋째는 陝西의 關中 盆地 라는 설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첫 번째 설을 취한다.

22) 『史記』「夏本紀」에 汧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우가] 아홉 산의 길을 열었으니, 汧山은 岐山에 미치고 荊山까지 이르렀으며 하수를 뛰어넘었다. 道九山, 汧及岐至于荊山, 踰于河.”

23) 『史記本紀』에서 雍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 “二十年, 武公卒, 葬雍平陽”, “德公元年, 初居雍城大鄭宮”, “三十九年, 繆公卒, 葬雍”(『秦本紀』), “出公享國二年. 出公自殺, 葬雍”(『秦始皇本紀』), “鬼與區號大鴻, 死葬雍, 故鴻冢是也”(『孝武本紀』), “項羽乃立章邯爲雍王, 置楚軍中.”(『項羽本紀』)

之風也。其中具五民。”(『貨殖列傳』)

ii) “宛도 큰 도시 중 하나이다. 풍속은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으며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생업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많다. 宛亦一都會也。俗雜好事, 業多賈。”(『貨殖列傳』)

iii) “연나라는 渤海와 碣石山 사이에 있는 큰 고을인데 남쪽으로는 제와 조나라에 통하고, 동북쪽으로는 흉노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 上谷부터 요동에 이르는 곳은 아주 멀어 백성이 적고 자주 침략 당했다. 풍속은 趙나라, 代나라와 아주 닮았고 백성은 강하고 사납지만 생각이 얕다. 물고기, 소금, 대추, 밤 등이 많이 생산된다. 북쪽으로는 烏桓 및 夫餘와 이웃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예맥, 조선, 진변에서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夫燕亦勃碣之間一都會也。南通齊趙, 東北邊胡。上谷至遼東, 地踔遠, 人民希, 數被寇, 大與趙代俗相類, 而民雕悍少慮, 有魚鹽棗栗之饒。北鄰烏桓夫餘, 東綰穢貉朝鮮真番之利。”(『史記』「貨殖列傳」)

인용문에 공통으로 나타난 “都會”란 단어를 눈여겨 보면, 모든 지역이 지리적 탁월성으로 인하여 물산도 다양하다고 한 대목에서 시각의 참신성을 알 수 있다.²⁴⁾ i)의 臨淄라는 도시는 동해와 태산의 사이에 있어 산과 바다를 지나는 교통의 요지이므로 상업 발달이 요긴함을 알 수 있다. 『齊悼惠王世家』에도 “제나라 임치에는 10만 호가 있어, [장사가 잘되어] 상업의 세금이 1000금이고 사람이 번성하고 부유하여 장안보다 큼니다. 齊臨淄十萬戶, 市租千金, 人衆殷富, 巨於長安.”라고 잘 나와 있으며, ii)의 宛도 장사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풍속이 섞여 있는 도시임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사마천은 iii) 燕 땅에 대한 언급인데 동북쪽으로 흉노와 경계하고 요동과 멀어 침략당하는 폐해가 있기는 하지만 바다와 산 사이에 있다는 교통의 여건과 여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 교역이 발달하여 독점하는 것을 장점으로 특화시켰다. 사마천이 “도와 수양도 한 도회였다. 陶睢陽亦一都會也.”라고 한 陶와 睢陽도 모두 운하의 바로 옆에 위치했다는 利點을 활용하여 상업이 발전하였는데 그 유명한 범려가 장사를 통해 큰 돈을 번 곳이 陶라는 곳이기도 하다. 교통의 요지이니 교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을 사마천은 “貨物交易”²⁵⁾의 말로서 표현하였다.

이렇듯 각 지역은 모두 자신에게 적합한 상업의 방식을 낳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지리 환경에 따라 도시가 형성되어 교통의 요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마천의 경제구역 구분 방식은 각 도시 중심의 경제지도를 만든 것으로 지리적 이점과 유통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풍속사를 세밀하게 분석하고²⁶⁾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24) 또 다른 예를 들면, 사마천은 조나라의 도읍인 邯鄲을 거론하면서 “한단은 장수와 하수 사이에 있는 큰 도회이다. 북쪽으로 연과 탁에 통하고, 남쪽에는 정과 위나라가 있다. 邯鄲亦漳河之間一都會也。北通燕涿, 南有鄭衛。”(『貨殖列傳』)고 하면서 이곳 역시 도시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요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陳은 조나라와 夏나라의 중간에 있어 생선과 소금 등의 물자를 교역하고, 그곳 백성 중에는 장사꾼이 많다 陳在楚夏之交, 通魚鹽之貨, 其民多賈。”(『貨殖列傳』)고 할 수 있으며, 江陵은 조나라의 고도로 강남 경제구를 위해 비교적 일찍 개발된 지역으로, 뛰어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업도 일찍 발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마천의 이러한 시각의 참신성은 “도시의 문화의 용기다. 도시가 조성되고 발전하면서 도시문화 또한 생성된다.”(박정희, 『중국 도시 문화 연구 - 충칭을 중심으로』, 『中國學』, 第62輯, 2018.03, p.34.)는 발언을 떠올리게 만든다.

25) “주공은 陶가 천하의 중심으로 제후국과 사방으로 통하여 물자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장사를 하며 물자를 쌓아 두었다가 시세의 흐름을 보아 [내다 팔아서] 이익을 거두었는데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바라지는 않았다. 朱公以爲陶天下之中, 諸侯四通, 貨物所交易也。乃治產積居。與時逐而不責於人。”(『貨殖列傳』)

4. 경제지리와 변화하는 사회상에 따른 상인계층의 양상

1) 상업 기술의 전문화와 제철업 등 직업군의 전문화

시세의 변동을 살펴 돈을 버는 일에 탁월했던 白圭²⁷⁾와는 달리 李克²⁸⁾은 농업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는데, “토지의 생산력을 다하는데 힘썼다務盡地力”(『漢書』「食貨志」)라는 반고의 서술과도 일치된다. 농사 방법의 변화를 꾀한 이극의 부의 창조와 時變을 통해 부의 축적을 강조한 백규의 방식에 대해 사마천은 「화식열전」에서 이렇게 말한다.

“白圭는 주나라 사람이다. 魏나라 文侯 때 李克은 地力을 높이는 일에 힘을 기울였으나, 백규는 시세의 변동을 살피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백규는] 사람들이 버리면 자신이 사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들일 때는 자신이 팔아넘겼다. 풍년이 들면 곡식을 사들이고 실과 옷은 팔았으며, 누에고치가 나돌면 비단과 풀숨을 사들이고 식량을 팔았다. (……) 물건을 사재기하는 것이 해마다 배로 늘어났다. 돈을 불리려면 값싼 곡식을 사들이고, 수확을 늘리려고 상급의 종자를 취했다. 白圭, 周人也. 當魏文侯時, 李克務盡地力, 而白圭樂觀時變, 故人棄我取, 人取我與. 夫歲孰取穀, 予之絲漆, 繭出取帛絮, 予之食 (……) 積著率歲倍. 欲長錢, 取下穀, 長石斗, 取上種.”(『史記』「貨殖列傳」)

26) 예를 들면 이런 서술 방식이다. “중산은 땅이 메마르고 사람이 많은 데다 사구 일대에는 음란한 것을 하던 주왕의 자손들이 사는데, 그들의 풍속은 경박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어 생활했다. 남자들은 서로 모여 놀고 회롱하며, 슬픈 노래로 울분을 터뜨리고, 일어나면 서로 따르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을 하며, 일이 없을 때는 무덤을 파헤쳐서 보물을 훔쳐 위조품을 교묘하게 만들고 나쁜 짓을 하며, 대놀이를 하기도 했다. 여자들은 비파를 타고 신발을 끌고 다니며 부귀한 사람들에게 아부하여 후궁으로 들어가 제후국마다 두루 퍼져 있다. 中山地薄人衆, 猶有沙丘紂淫地餘民, 民俗懷急, 仰機利而食. 丈夫相聚游戲, 悲歌慷慨, 起則相隨椎剽, 休則掘冢作巧姦治, 多美物, 爲倡優. 女子則鼓鳴瑟, 跕屣, 游媚貴富, 入後宮, 遍諸侯.”(『貨殖列傳』) 이러한 사마천의 서술은 “도시는 지역 공동체의 권력과 문화가 집중된 곳이다”(박홍규, 『메트로폴리탄 게릴라』, 텍스트, 2010, p.194.)라는 발언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런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마천이 인식한 도시의 특징은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문화와 권력, 풍속과 역사가 두루 망라된 개념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7) 『史記』「魯仲連鄒陽列傳」에 “백규가 중산에서 이름을 날렸을 때 중산의 어떤 사람이 위나라 문후에게 그를 비방하였지만, 문후는 오히려 밤에도 빛을 발하는 구슬을 백규에게 내렸습니다. 무엇 때 문입니까? 이는 두 군주의 두 신하가 심장을 도려내고 간을 가르는 것처럼 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떠돌아다니는 없는 말에 흔들렸겠습니까! 白圭顯於中山, 中山人惡之魏文侯, 文侯投之以夜光之璧. 何則? 兩主二臣, 剖心坼肝相信, 豈移於浮辭哉!”라고 하였는데, 『史記集解』에서 張晏은 “백규는 中山의 장군이 되어 六城을 잃고 군주가 그를 죽이고자 하였는데 도망하여 魏나라로 들어가 魏文侯의 후한 대접을 받고 중산을 還拔했다. 集解張晏曰, 白圭爲中山將, 亡六城, 君欲殺之, 亡入魏, 文侯厚遇之, 還拔中山”고 하였다. 한편 백규에 관한 행적은 『戰國策』과 『呂氏春秋』 등에서도 보인다.

28) 이와 관련하여 『史記索隱』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索隱案, 漢書食貨志李悝爲魏文侯作盡地力之教, 國以富強. 今此及漢書言克, 皆誤也. 劉向別錄則云李悝也”라고 하였다. 요컨대 『漢書』「食貨志」에 李悝는 魏文侯를 위해 地力의 가르침을 다하여 부국강병이 되게 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이것으로 보면 원문의 ‘李克’으로 표기된 것은 착오임을 밝혔으며, 『劉向別錄』에서도 ‘李悝’로 일컬었다. 한편 『史記』의 「魏世家」, 「孫子吳起列傳」에서 魏文侯와 李克에 관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으나 경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백규는 천문에도 능하여 하늘의 상황을 보고 풍년과 흉년의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였고 그에 따라 값의 오름과 내림을 예측하여 買占賣惜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사마천은 부연하면서, 특히 백규의 검소함과 빠른 판단력²⁹⁾이 致富의 원동력이 됨을 분명히 적시했다. 백규와 같이 풍년과 흉년의 시기 예측과 값이 오르고 내림을 예측한 것으로 계연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쟁이 있을 것을 알면 미리 방비해야 하고, 때에 맞는 쓰임을 알면 [필요한] 물건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드러나면 모든 재물의 실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歲星이 서쪽에 있으면 풍년이 들고, 북쪽에 있으면 수해가 발생하며, 동쪽에 있으면 기근이 들고, 남쪽에 있으면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든 해에는 미리 배를 준비해 두고, 수해가 있는 해에는 미리 수레를 준비해 두는 것이 사물의 이치입니다. 6년마다 한 차례 풍년이 들고, 6년마다 한 차례 가뭄이 들며, 12년마다 한 차례 흉년이 듭니다. 쌀값이 한 말에 20전이면 농민이 고통을 받고, 90전이면 [반대로] 상인이 고통을 받습니다. 상인이 고통을 받으면 상품이 유통되지 않고, 농민이 고통을 받으면 논밭이 개간되지 못합니다. 知門則修備, 時用則知物, 二者形則萬貨之情可得而觀已. 故歲在金, 穰, 水, 毀, 木, 饑, 火, 旱. 旱則資舟, 水則資車, 物之理也, 六歲穰, 六歲旱, 十二歲一大饑. 夫糴, 二十病農, 九十病末. 末病則財不出, 農病則草不辟矣.” (『史記』「貨殖列傳」)

계연은 천문학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날씨 등의 정보를 수확물에 적용하여 수익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 상업의 기술에 있어 전문성을 활용한 상인의 예로 촉군의 탁씨가 교역을 할 때 滇과 蜀 땅의 백성을 기술자로 이용하여 가깝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점, 師史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 부자들에게 장사하는 법을 교육시킨 점 등을 들었다.

지역과 도시마다 대표적인 상인계층이 형성되었으니 사마천은 「仲尼弟子列傳」에서 子貢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억측하면 자주 적중하였다億則屢中”고 하여 능력을 가진 상인인 동시에 “항상 노나라와 위나라에서 재상 노릇하였다常相魯衛”고 하는 데서 능력을 가진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서술하였다. 「貨殖列傳」에서 齊, 晉, 吳, 越 등의 군주를 설득하면 그 군주가 “그 나라의 군주가 뜰까지 내려와 대등한 예우를 하지 않음이 없었다國君無不分庭與之抗禮”고 기록하였고 자공이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가마행렬을 거느리며 비단을 폐백으로 들고 제후들을 찾아갔다結駟連騎, 束帛之幣以聘享諸侯.”라고 서술하였다. 「貨殖列傳」에서 시간의 선후에 따른 인물의 배열순서는 范蠡, 子貢, 白圭이고 그 뒤를 이어 猗頓과 郭縱이 거론되는데 范蠡와 子貢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상인이다. 烏氏縣의 僦는 기이한 것을 주고 용왕의 가축과 교환하여 “畜至用穀量馬牛”가 되었고 서북 변방 지역 무역의 선하를 열었다. 물론 유통업이다. “秦始皇帝令僦比封君, 以時與列臣朝請.”라고 하면서 그의 위상을 첫 번째 “素封”의 반열에 올렸다. 진시황의 평천하 사업에 또 다른 기여자는 巴에 사는 과부 淸으로 그녀는 단사가 나는 동굴을 발견하여 女懷淸台라는 것을 진시황이 지어줄 정도로 여성 기업가의 명성

29) “거친 음식을 달게 먹고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며 옷을 검소하게 입고 노복들과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했으나, 시기를 보아 나아가는 데는 마치 사나운 짐승이나 새처럼 재빨랐다. 能薄飲食, 忍嗜欲, 節衣服, 與用事僮僕同苦樂, 趨時若猛獸摯鳥之發.” (『貨殖列傳』)

을 누렸다.

물론 사마천은 ‘利’만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富를 통해 ‘義’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군자가 부유하면 덕을 즐겨 실천하고, 소인이 부유하면 자기 능력에 닿는 일을 한다 君子富，好行其德，小人富，以適其力.”(『貨殖列傳』)라는 말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利’를 취하기에 앞서 ‘義’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만약 이러한 ‘義’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고, 어지러워질 것³⁰⁾이라고 하면서 과도한 욕망을 절제할 것을 요청했다.³¹⁾

사마천은 경영을 통해 집안을 일으킨 猗頓, 철광 제련으로 돈을 번 郭縱 등은 왕과 대등한 부를 누렸다고 하였다. 특히 철광 사업으로 부를 이룬 자들의 출현이 우연은 아니다. 철기의 발명으로 생산도구의 대혁명이 이루어져 농업생산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었으니, 사마천이 “구리와 철은 사방 1000리 안에서 나오므로 바둑돌을 벌여 놓은 것처럼 [여기저기에] 있다 銅鐵則千里往往山出棋置.”(『貨殖列傳』)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도처에 제련이 이루어진 것은 그만큼 농민의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孔子도 “장인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의 연장을 날카롭게 해놓아야 한다 工欲善其事，必先利其器.”(『論語』「衛靈公」)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춘추전국시대의 철은 농공업 생산력을 좌우할 만한 획기적인 상품이었다. 사마천은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있다.

광석을 채굴하고 철을 제련하고 소금을 삶거나 구리를 캐는 등의 업종은 많은 돈을 벌리는 지름길이었으니, 특히 제철 공업이 발달한 후에 농기구용 철기라는 광대한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마천은 猗頓³²⁾과 卓氏가 돈을 번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i) “의돈은 염전을 경영하여 [집안을] 일으켰고 한단의 郭縱은 철광 제련으로 사업을 이루었는데, [그들은] 왕과 대등할 만큼 부유했다. 猗頓用鹽鹽起，而邯鄲郭縱以鐵冶成業，與王者埒富.”(『史記』「貨殖列傳」)

ii) “촉군의 卓氏는 조상이 조나라 사람이다. [탁씨는] 철을 캐고 제련하여 부자가 되었다. 秦

30) “飯蔬食飲水，曲肱而枕之，樂亦在其中矣。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論語』「述而」), “君子有勇而無義，爲亂。小人亦勇而無義，爲盜.”(『論語』「陽貨」)

31) 공자가 ‘貧而樂’의 경지를 요구하면서 그의 제자 안희를 거론한 것도 그 예다. 『禮記』「樂記」에서 “군자는 그 도를 즐기고 소인은 그 욕망을 즐긴다 君子樂得其道，小人樂得其欲.”라는 구절이나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君子喻於義，小人喻於利.”(『論語』「異仁」)는 것은 부에 관한 유가의 관념을 대표한다.

32) 猗頓은 『鹽鐵論』「力耕」편에서도 보인다. “대부가 말했다. ‘수도에서 사방으로 산천을 지나 각 군현을 통과하는 변화한 대도시는 길이 통하지 않은 곳이 없고, 상인이 모여 있으며 각종 물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능 있는 사람은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리 이용에 뛰어나며, 총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취하지만 총명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힘에 기댑니다. 長沮와 桀溺같은 농부는 백금을 저축할 수 없었고, 도척이나 莊躄는 의돈처럼 부유할 수 없었지만, 宛·周·齊·魯 등지의 상인은 천하를 주유하여 만금을 쌓아 놓기도 했는데,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여 많은 이윤을 남긴 결과입니다. 하물며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데 왜 농사를 지어야 하며,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데 왜 반드시 정전제를 취해야 합니까?’ 大夫曰，自京師東西南北，曆山川，經郡國，諸殷富大都，無非街衢五通，商賈之所湊，萬物之所殖者。故聖人因天時，智者因地財，上士取諸人，中士勞其形。長沮桀溺，無百金之積，跼蹐之徒，無猗頓之富，宛周齊魯，商遍天下。故乃商賈之富，或累萬金，追利乘羨之所致也。富國何必用本農，足民何必井田也?” 이 인용문에서 보듯이 의돈이 당대의 큰 재산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도시의 유통과 상인의 집중성, 상업에 대한 긍정성, 시장의 자율성, 사유재산’ 등을 피력한 대부의 말은 사마천의 경제관과 많이 닮아 있다.

나라가 조나라를 깨뜨렸을 때 탁씨를 옮겨 살도록 했다. 탁씨는 포로가 되어 재물을 빼앗겼으므로 부부가 손수레를 끌고 이주지로 갔다. 함께 옮겨 간 포로 가운데 남은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다투어 [진나라] 관리에게 뇌물을 바치고,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葭萌에 자리를 잡았다. 탁씨는 말했다. ‘이 곳(가맹)은 땅이 좁고 메마르다. 나는 汶山 기슭에 기름진 들이 있어 큰 감자가 생산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굶지 않으며, 백성은 장사에 뛰어나고 쉽게 거래할 수 있다고 들었다.’ 이에 먼 곳으로 옮겨 가기를 위하여 臨邛으로 가게 되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철이 생산되는 산으로 들어가 쇠를 녹여서 그릇 만드는 일을 했다. [그는] 지혜롭게 교역하여 滇과 촉 땅의 백성을 기술자로 이용했다. [그의] 富는 노비가 1000명에 이르고, 진답과 연못에서 사냥하고 고기잡이하는 즐거움이 임금의 그것에 견줄만했다. 蜀卓氏之先, 趙人也, 用鐵冶富. 秦破趙, 遷卓氏. 卓氏見虜略, 獨夫妻推輦, 行詣遷處. 諸遷虜少有餘財, 爭與吏, 求近處, 處葭萌. 唯卓氏曰 此地狹薄. 吾聞汶山之下, 沃野, 下有蹲鴟, 至死不飢. 民工於市, 易賈. 乃求遠遷. 致之臨邛, 大喜, 即鐵山鼓鑄, 運籌策, 傾滇蜀之民, 富至僮千人. 田池射獵之樂, 擬於人君.” (『史記』「貨殖列傳」)

iii) “程鄭은 산둥에서 이주해 온 포로로서, 역시 철을 제련하여 머리를 방망이 모양으로 상투를 틀어 올린 사람들과 거래했다. [그도] 탁씨처럼 부유했고 함께 임공에서 살았다. 程鄭, 山東遷虜也, 亦冶鑄, 賈椎髻之民, 富埒卓氏, 俱居臨邛.” (『史記』「貨殖列傳」)

위에서 예시한 자들은 공통점이 있으니, 모두가 염철 경영을 통해 큰 부를 축적했으며 이들의 권세는 의돈과 탁씨에게서 확인되듯 왕에 버금갈 만큼 그 富에 걸맞는 위상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염철은 한나라 조정의 독과점 품목이었는데, 이것에 접근하여 부를 축적한 것으로 이들은 아무런 신분도 없는 평범한 신분 출신들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2) 변화하는 사회상에 따른 漢 武帝 정책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당시 均輸制와 平準法³³⁾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른 물가 안정이 본래 목적이지만, 이런 것을 국가가 장악하면서 대량의 물품을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되파는 일종의 買占賣惜 행위로 발전되는 폐단도 적지 않았다. 鹽鐵로 대변되는 독점 정책들로 인해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들의 위상이 하락하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상품 유통의 매개자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국의 질서유지의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마천의 일관된 논지다. 사마천은 말한다.

“한나라가 일어나 천하가 하나가 되자, 관문과 다리를 개방하고 산림과 소택의 [나무를 베고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한] 금령을 느슨하게 하였다. [이에] 富商과 大商들이 천하를 두루 다니게 되어 교역하는 물건은 유통되지 않는 게 없었으므로 바라는 것은 다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한나라는 지방의] 호걸들과 제후국의 권문세족들을 京師로 옮겨 살게 했다. 漢興, 海內爲一, 開關梁, 弛山澤之禁, 是以富商大賈周流天下, 交易之物莫不通, 得其所欲, 而徙豪傑諸侯疆族於京師.” (『史記』「貨殖列傳」)

33) 사마천의 경제사관은 「平準書」 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편에는 漢 武帝까지의 100여 년 간의 前漢시대의 조세제도, 재정적 변동 상황, 화폐 제도와 그 유통 문제, 염철 專賣와 균수와 평준 등 유통 경제 등이 전문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윗 예문에서 드러나듯, 유통이나 상업의 여건이 마련되자 물건은 유통되고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도시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제왕들은 지방의 호걸과 권문 귀족들에게도 압박을 가하여 富를 통한 권력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수도로 모여들게 했다.

즉, 富의 창출을 방해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국가였다. 漢 武帝 통치 당시 상인들은 수레를 탈 수 없거나 세금도 많이 내었다. 한편으로는 농지 면적이 확대되고 수공업의 발달과 도시의 흥기로 대외무역도 활발해지고 漢 武帝가 대외 전쟁에 승리를 거듭하면서 한 제국의 경제시장 규모도 확장되었다.³⁴⁾

이러한 상황에서 사마천은 「平準書」에서 漢 武帝 시기의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은 논조로 언급하고 있다.

“지금의 황상이 자리에 오른 지 몇 년이 지나고 한나라가 일어난 지 70여 년이 되도록 국가에는 일이 없었으며 수해나 가뭄의 재해도 생기지 않았고 백성들은 사람들마다 배부르고 따듯하며 집집마다 풍족하였다. 도시나 촌락의 미곡 창고는 모두 가득 찼으며, 조정 창고에도 재화가 남아돌았다. 수도의 금고에는 억만금이 쌓여 있었는데 돈폐미는 썩어 썰 수도 없었다. 커다란 창고의 양식은 묵은 곡식이 계속 쌓여 가득 넘쳐나 [태창] 밖 노천에 쌓아 놓았으나 썩어서 먹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至今上即位數歲，漢興七十餘年之間，國家無事，非遇水旱之災，民則人給家足，都鄙廩庾皆滿，而府庫餘財。京師之錢累巨萬，貫朽而不可校。太倉之粟陳陳相因，充溢露積於外，至腐敗不可食.”(『史記』「平準書」)

즉, 사마천은 漢 武帝 당시의 풍족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도가 지나친 면모를 풍자하고 있다. 사마천은 제아무리 개인이 致富를 해도 각종 세금 등을 통해 수탈해가서 국가가 그 혜택을 누리면 안된다고 보았다.³⁵⁾ 사마천은 특히 “이때부터 천하는 다투어 전국에 이르기 거짓과 무력을 귀하게 여기고 인의를 하찮게 여기며, 부유함을 앞세우고 겸손을 뒤로 밀어냈다自是以後，天下爭於戰國，貴詐力而賤仁義，先富有而後推讓.”(「平準書」)고 하여 당시의 재정과 경제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사마천은 「貨殖列傳」에서 計然의 말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쌀값을 안정시키고 물자를 고르게 유통시켜 관문이나 시장에 물건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나

34) 이러한 입장은 『漢書』卷24, 「食貨志」에도 “自天子不能具醇駟，而將相或乘牛車”，“民失作業而大饑饉”이라고 되어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 경제적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단서다. 물론 이 점은 사마천의 경제사적인 공헌이 압도적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35) “출정하는 자는 옷과 먹을거리를 가져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내어 중앙과 지방이 소요로 인해 서로 불안하고 백성들은 궁핍해져서 범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재물이 소모되어 부족하게 되었다. 재물을 [뇌물로] 바치는 사람은 관리로 임명되고 돈을 갓다 주면 죄도 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관리를 선발하는 선거제도가 무너져버렸고 엄치도 없이 힘 있는 자에게 불거나 등용되었기에 법령은 더욱 엄격하게 갖추어져야만 했다. 이익을 꾀하는 신하들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行者齎，居者送，中外騷擾而相奉，百姓抗弊以巧法，財賂衰耗而不贍。入物者補官，出貨者除罪，選舉陵遲，廉恥相冒，武力進用，法嚴令具。興利之臣自此始也.”(「平準書」)

라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물자를 축적하는 원칙은 물건을 온전한 채로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지 물화를 오래 쌓아 두는 게 아닙니다. 물자를 서로 교역하는데 상하기 쉬운 것을 팔지 않고 남겨 두면 안 되고, 물건을 쌓아 두고 비싸질 때까지 오래 기다리면 안 됩니다. 물건이 남아 도는지 모자라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이 비싼지 싼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쌀 대로 비싸지면 헐값으로 돌아오고, 싼 대로 싸지면 비싼 값으로 되돌아갑니다. 값이 비싸면 오물을 배설하듯이 내다 팔고, 값이 싸면 구슬을 손에 넣듯이 사들여야 합니다. 물건과 돈은 그 유통이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합니다. 平糶齊物, 關市不乏, 治國之道也. 積著之理, 務完物, 無息幣. 以物相貿易, 腐敗而食之貨勿留, 無敢居貴. 論其有餘不足, 則知貴賤. 貴上極則反賤, 賤下極則反貴. 貴出如糞土, 賤取如珠玉. 財幣欲其行如流水.”(『史記』「貨殖列傳」)

사마천은 “積著”의 원리³⁶⁾를 설명하여 재화를 오래 쌓아 두는 것의 병폐를 말하면서 상품 공급과 가격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빠른 자금 회전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有餘”와 “不足”은 공급과잉과 공급 부족의 관계이다. 여기서 “貴”와 “賤”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으로서 상품 가격의 형성이 시장원리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다. 수요공급 관계에 따라 시장은 변동성이 발생하며 필연적으로 가격 파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가격 형성 지점을 고려해서 부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사마천의 시각이다. 여기서 “쌀값을 안정시키고 물자를 고르게 유통시켜 관문이나 시장에 물건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길平糶齊物, 關市不乏, 治國之道也.”이라고 하면서 말미에 “물건과 돈은 물처럼 원활하게 유통시켜야 합니다財幣欲其行如流水”라고 제안하는데, 사마천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경제 정책의 함의가 지나친 정부의 규제나 시장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에서의 조절 정책까지 포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마천은 위와 같이 각자 능력에 맞는 일을 하고, 이를 유통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상업을 경시하던 전통적인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생각이었는데, 현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사마천의 생각은 시장의 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마천은 재물의 중요함을 일찌감치 깨닫고, 이를 道家의 사상과 연관하여 물건과 재물이 흘러가는 것이 경제에서의 자연스러운 법칙임을 말하였다. “빈부의 도란 빼앗거나 안겨 주어서 되는 게 아니고, 교묘한 재주가 있는 사람은 부유해지고 모자라는 사람은 가난한 것이다”³⁷⁾라고 하여 자유경제에서 발생 되는 빈부의 차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다.

상인은 철저히 능력에 의해 부를 얻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사마천은 지적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된다고 말한다.³⁸⁾

36) “廢居”와 “積著”의 賈人에서 소금이나 철을 대규모 기업 방식으로 하는 인물들은 “貨殖”과 “末業”에 종사하는 계층들이다.

37) “貧富之道, 莫之奪予, 而巧者有餘, 拙者不足.”(『貨殖列傳』)

38)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자유주의 경제관, 즉 경제적 자유주의를 처음으로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한 사람이 근대 경제학의 시조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였다. 국가는 정의의 법만 확립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이익을 좇아 자유롭게 돈 벌게 하라. 그리하면 신이 만들어놓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산업은 저절로 발전하여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스미스의 비전은 부르주아 계급의 낙관적 세계관이며, 오늘날까지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핵심이다.”(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기파랑, 2006, p.25)

“사람들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그 힘을 다하여 바라는 바를 얻는다. 그러므로 물건[穀]이 싸다는 것은 비싸질 조짐이며, 비싸다는 것은 싸질 조짐이다. 각자가 그 생업에 힘쓰고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으로 쉴 새 없이 [물건은] 부르지 않아도 절로 모여들고 구하지 않아도 백성이 만들어 낸다. [이것은] 어찌 도의 부합한 바가 아니겠으며, 자연의 징험이 아니겠는가? 人各任其能, 竭其力, 以得所欲. 故物賤之微貴, 貴之微賤, 各勸其業, 樂其事, 若水之趨下, 日夜無休時, 不召而自來, 不求而民出之. 豈非道之所符, 而自然之驗邪?”(『史記』「貨殖列傳」)

사마천은 기본적으로 상업과 공업의 발달, 철기의 발명 등으로 인한 생산도구의 혁명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거쳐 상품교환과 유통업이 활성화되면서 상인 집단이 발달하였다고 보았다.³⁹⁾ 사마천은 “文景之治”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상인은 이전에 없었던 황금기를 이루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⁴⁰⁾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마천은 「貨殖列傳」에서 경제 지리적 관점으로 지리적 여건과 풍속, 유통망을 서술하고, 물산과 상인이 모이는 주요 “都會” 즉 도시를 거론하였으며, 벼슬하지 않은 필부부터 현인 및 명망이 높은 자들까지 致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자족적이던 경제 단위를 벗어나 도시의 성립과 함께 상업이 활성화되고 권력과 신분에 의한 부의 독점에서 탈피한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려내고자 하는 것이다. 사마천의 일련의 자료수집과 사례기술은 모두 富貴로 귀착되고 있으며⁴¹⁾ 「貨殖列傳」에서 저술 동기의 핵심으로 “息財富”을 거론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致富를 긍정하면서 신분을 초월하여 치부한 자들에게

39) 위의 책, “한나라가 일어나, (……) 부상과 대상들이 천하를 두루 다니게 되어 교역하는 물건은 유통되지 않는 게 없었으므로 바라는 것은 다 얻을 수 있었다. (……) 농사와 목축과 공업과 별목과 행상에 온 힘을 기울여 이익과 손해를 따져 대처하여 이익을 올려 부를 이룩한 사람 가운데에 크게는 한 군을 압도하고, 그다음은 한 현을 압도하며, 작게는 한 마을을 압도하는 사람도 있었으니 그 예를 일일이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많다.漢興, (……) 富商大賈周流天下, 交易之物莫不通得其所欲. (……) 若至力農畜, 工虞商賈, 爲權利以成富, 大者傾郡, 中者傾縣, 下者傾鄉里者, 不可勝數.”

40) “楊可가 告緡令을 주관하게 되어 천하에 두루 시행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상인들은 대부분 고발당했다. 杜周가 이 사건을 다스렸는데 판결이 뒤집히는 일은 적었다. 그래서 御史, 廷尉正, 監으로 구성된 무리를 나누어 보냈고, 즉각 군국의 민전을 다스려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인 재물은 억 단위로 쉼해야 했으며, 노비는 천만을 헤아리고, 밭은 큰 현인 경우에는 수백 경, 소현인 경우에는 100여 경이었고 집 역시 이와 같았다. 이에 상인과 중산층 이상의 재력을 가진 자들은 대부분 파산했다.楊可告緡遍天下, 中家以上大抵皆遇告. 杜周治之, 獄少反者. 乃分遣御史廷尉正監分曹往, 即治郡國緡錢, 得民財物以億計, 奴婢以千萬數, 田大縣數百頃, 小縣百餘頃, 宅亦如之. 於是商賈中家以上大率破.”(『平準書』) 이 자료를 통해서 告緡令을 주관하고 시행하게 된 이유를 추적해보자면 당시 중산층 이상의 상인들의 재력 규모를 알 수 있고, 통치 질서에 위협이 될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41) “由此觀之, 賢人深謀於廊廟, 論議朝廷, 守信死節隱居巖穴之士設爲名高者安歸乎? 歸於富厚也. 是以廉吏久, 久更富, 廉賈歸富. 富者, 人之情性, 所不學而俱欲者也.”(『貨殖列傳』)

서 배울 점을 취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빈부에 대한 인간의 차별화된 반응이야말로 자연의 이치이며 인간의 주된 욕망으로 보았다.

사마천은 이러한 논지를 펼치기 위해 老子의 관점을 거론하여 물질을 두고 백성과 다투는 행태를 하급이라고 비판을 가한다. 그러고는 자율 경제 정책에 바탕을 두고 인위적인 물가조절정책을 비판하고 특히 국가가 백성들의 경제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사마천의 이러한 시각은 지역의 특수성과 개인의 역량에 의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시장경제의 자율성에 맡기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업은 농업에 대비되어 末業으로 인식되었으나, 사마천은 致富를 위해서는 장사에 바탕을 두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투자의 극대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이는 문화생태학적 접근에 근거한⁴²⁾에서 보이는 사마천 경제관의 탁월함이다. 특히, 사마천은 전국 각 경제구역과 각 지역의 생산물인 농산물이나 수공업 제품, 천연 광산물, 임산물 등 다양한 상품은 수요자의 요구와 사용가치가 있는 한 유통·판매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마천의 경제 지리적 경제관은 각 도시 중심의 경제지도를 만들어 분석하여 지리적 이점과 유통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풍속사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사마천은 농업, 공업, 상업 등의 분업은 사회,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했으며, 상업 또한 농업, 공업과 함께 중시하는 진보적인 면모를 보였다. 이러한 사마천의 경제관에는 漢武帝 당시의 중앙통제식 경제 정책과 염철 등의 독점, 세금 정책의 부담감 등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사마천이 추구하고자 한 경제관은 개인의 욕망에 대한 확고한 긍정이요, 국가의 富보다는 개인의 致富 중요성을 직시한 것으로 상업과 유통을 중심에 두고 역사와 풍속에 대한 식견을 활용하여 ‘貨殖’이라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운 경제관이라 하겠다.

42) “인문지리학에서 인간-자연관계 연구의 전개과정에서 문화 생태적 접근에 근거한 생업활동연구는 그 사회의 환경에 대한 문화적 적응을 말한다.”(미즈우치 도시오, 심정보 역, 『공간의 정치지리』, 푸른길, 2010, p.127)

【참고문헌】

-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2002.
- 瀧川龜太郎, 『史記會注考證』, 臺北, 宏業書局, 1974.
- 安平秋, 『史記通論』, 華文出版社, 2005.
- 韓兆琦, 『史記通論』,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6.
- 張大可, 『史記研究』, 北京商務印書館, 2011.
- , 『史記新注』4冊, 華文出版社, 2000.
- 韓兆琦, 『史記箋證』, 廣西, 江西人民出版社, 2004.
- 이성규, 『史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미즈우치 도시오, 심정보 역, 『공간의 정치지리』, 푸른길, 2010.
- 박기수 외, 『중국 고대 사회경제사』, 청어람미디어, 2005.
- 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기파랑, 2006.
- 한주성, 『경제지리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6.
- 박홍규, 『메트로폴리탄 게릴라 - 박홍규의 루이스 머퍼드 일기』, 도서출판 텍스트, 2010.
- 馮友蘭, 『中國哲學史新編』(第2冊), 河南人民出版社, 2001.
- 史念海, 「中國曆史地理學區域經濟地理的創始」, 『中國曆史地理論叢』, 第3期, 1996, pp.1-22.
- 鄭志忠, 「從『史記·貨殖列傳』看司馬遷經濟思想」, 『劍南文學(經典教苑)』, 第2期, 2012, pp.259-260.
- 黃 偉, 「『史記·貨殖列傳』中體現的經濟思想探析」, 『現代商貿工業』, 第1期, 2010, pp.220-221.
- 張 雯, 「簡論『史記·貨殖列傳』中的商人形象」, 『安徽文學』, 第12期, 2011, p.135.
- 鄒其昌, 李青青, 「『史記』的工匠文化觀—中華工匠文化體系研究系列之八」, 『同濟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8卷 第6期, 2017, pp.59-69.
- 蹇福闊, 「從『貨殖列傳』看司馬遷對社會經濟規律的認識」, 『重慶職業技術學院學報』, 第17卷 第1期, 2008, p.111-112.
- 雷虹霽, 「漢文化形成時期的多樣性與區域性特點—以漢代曆史文獻為中心的考察」, 『南都學壇(人文社會科學學報)』, 第29卷 第4期, 2009, pp.11-17.
- 朱永康, 「司馬遷·班固貨殖論之分野及其曆史價值—兼說『貨殖列傳』非司馬遷原題」, 『上海師範大學字報』, 第3期, 1988, pp.13-22.
- 孫洪升·宋一淼, 「論司馬遷的經濟思想」, 『思想戰線』, 第1期 第42卷, 2016, pp.152-157.
- 詹朝陽, 「司馬遷的經濟思想新論—以『史記·平准書』和『史記·貨殖列傳』為參照」, 『產業與科技論壇』, 第17卷 第12期, 2018, pp.121-122.
- 鄧皎昱, 「論司馬遷的商業經營思想—以『史記·貨殖列傳』為例」, 『蘭州教育學院學報』, 第32卷 第9期, 2016, p.21-22.
- 劉及佳, 「勾侖司馬遷的貨殖學說—讀『史記·貨殖列傳』」, 『湖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5期, 1987, pp.92-99.
- 김원중, 「『史記』『貨殖列傳』을 통해 본 富와 權력의 關聯樣相」, 『東洋學』, 제66집, 2017, pp.1-20.
- 황태연, 「서구 자유시장론과 복지국가론에 대한 공맹과 사마천의 무위시장 이념과 양민철학의 영향 - 공자주의 경제·복지철학의 보편성과 미래적 함의에 관한 비교철학적 탐색」, 『한국학』, 제35집, 2012, p.315-411.
- 최순희·김춘수, 「司馬遷의 貨殖列傳에 나타난 경제지국관과 경영관」, 『경영교육연구』 제27집, 2012.
- 김영인, 「司馬遷 經濟思想 研究」,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2009.
- 박정희, 「중국 도시문화 연구 - 충칭을 중심으로」, 『中國學』, 第62輯, 2018.03, pp.33-50.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致富, 地理的 環境, 經濟 地圖, 流通經濟, 商人階層		
	영문	Accumulate Wealth, Individual's Desire, View of the Economy, Economic Geography, Urban Economy		
<div>Some Reviews on Sima Qian's View of the Economy : Focusing on Accumulate Wealth Aspect between Economic Geography and Urban Economy</div> <div>Kim, Won-Joong</div> <p>Sima Qian has more positive perspective on individual's desire to create wealth than on national wealth, and stresses the importance of geographical environment and individual's competence in the process of accumulating wealth. Sima Qian emphasizes the spontaneity of the market, stresses the importance of the distribution, and explains specifically and explicitly that whoever can upgrade one's own status with wealth. Sima Qian recognizes that the development of logistic economy is related with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at it is hard to accumulate wealth unless using this aspect. In other words, he argues that the selection of location considering traffic conditions is the fundamental prerequisite for investment strategy, and that, with examples, explains this point as the key to accumulating wealth. Sima Qian also relates economic conditions with political situation, noting on the changes of political situation caused by financial fluctuation. Sima Qian's outstanding insight, which is greatly influential, can be seen through his analysis on geographical environment and his completion of economic map focusing on the pattern of local goods production and urban economy. His insight was derived from his detailed investigation on the correlation between geography and economy. The noticeable point is that Sima Qian thought that a group of merchants were basically formed by the activation of goods exchange and distribution industry through the development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revolution of production tools triggered by such things as the invention of iron, and the activation of urban economy.</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김원중 / 金元中 / Kim, Won-Joong		
	소 속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Em@il	wjkim@dankook.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11월 22일	심 사 일	2019년 11월 28일
	수 정 일	2019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5일